

# 시마자키 도손 연구\*

—한국에서 시마자키 도손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Ⅱ—

김 희 중\*\* · 임 성 규\*\*\*

(e-mail: josepk04@hanmail.net\*\* · imsung@bu.ac.kr\*\*\*)

---

## 目次

---

1. 서론
  2. 도손의 연구현황
    - 2.1. 단행본 · 번역본
    - 2.2. 학술논문
    - 2.3. 학위논문
  3. 결론
- 
- 

## 1. 서론

논자는 2005년 『21세기 일본문학연구』에서 「한국에서 도손(藤村) 문학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시마자키 도손의 연구 성과를 조명해보았다.

한국에서 도손의 작품이 소개되고 읽히기 시작한 것은 1970년경부터로 추정된다.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기까지는 『과계』를 중심으로 한 자연주의 문학으로서의 소개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이후 『藤村詩集』 『春』 『家』 등이 텍스트로 읽히면서 번역본으로 출간된다. 단행본의 출간은 1992년 노영희의 『아버지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연구서로서 대학에서 텍스트로 읽혀지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

\* 본 연구는 2011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남보건대학 관광영어과 부교수, 일본근·현대문학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일본어학전공 부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일본문학연구는 일본어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의 일본어교육은 일본문학 연구보다는 일본어를 수단으로 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문학은 일본어교육의 교재로서 상당한 진전은 있었지만 순수한 일본문학의 연구자체는 역사가 그리 길다고 할 수는 없다. 그 후 5년이 지난 2010년의 시점에서, 도손 연구 성과를 조사하여, 어떤 방식으로 도손연구가 진행되어, 어떤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데이터를 통해서 정성평가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데이터는 1990년 이후의 도손 연구의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주로 단행본 번역본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한섭의 『韓國日本文學關係研究文獻一覽』<sup>1)</sup>은 한국인 연구자들과 한국의 일본인 연구자들의 일본연구 문헌목록을 정리 편집하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서 한국일어일문학연구문헌 검색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헌의 수록 대상은 단행본과 학술논문이 주로서, 발표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발표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인이 일본에서 발표한 것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일본인이 한국 대학이나 학회지에서 발표한 것도 포함시켰다.

또한 논자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7(등재후보학회지이상)개 학회지에 발표된 도손의 논문 편수를 조사했다. 일본학보,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일본문화학보, 일어일문학, 동아시아일본학회(일본문화연구)이다. 이상과 같은, 데이터를 참고로 하여 도손의 저서 및 역서의 간행사정,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현황 및 성과, 그 문제점 및 과제를 조명하려고 한다.

## 2. 도손의 연구 현황

### 2.1. 단행본 · 번역본

노영희는, 그의 2편의 단행본을 통해 도손의 작품세계를 그의 문학적 주제인 고향과 아버지의 사상으로 가락하여, 도손 자신의 세계관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도손의 말년의 작품 『순례』 『동방의 문』에서 도손의 도래인의 관심에 주목, 그 중에서도 고구려와 백제 문화, 또한 그곳에서 이주한 도래인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밝혔다. 임성규의 『島崎藤村研究』는, 초기 도손시는 기독교의 영향에서 시작되고, 말년의 미완성 『동방의 문』은 동서양 종교의 습합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작가론 작품론 적으로 논하고 있다.

1)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5

번역본은 도손 초기의 시와 몇 편의 단편집, 그리고 자연주의의 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과계』 『봄』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자연주의 속에서 도손 작품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자전적요소가, 집요할 정도로 고백에 몰두하는 도손적 정서가 한국의 독자층에게는 그다지 매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동틀 무렵(夜明け前)』 『동방의 문(東方の門)』 등의 서사적인 작품은 소설이전에 일본의 근대를 접근할 수 있는 문화사적 자료로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번역본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 단행본

- 노영희 『아버지란 무엇인가』 시마자키도손의 문학세계 時事日本語社 서울 1992
- 노영희 『시마자키 도손』 고향과 아버지의 문학적 형상화 건국대출판부 서울 1995
- 임성규 『島崎藤村研究』 도서출판 冠岳社 서울 1996
- 『나쓰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글로세움, 2003
- 장남호 『일본 근현대문학 입문』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 번역본

- 『집』 노영희 민문고, 1990
- 『일본 名詩選』 종로서적, 1993
- 『폭풍우외 7편』 노영희 도서출판소화, 1996
- 『일본근대대표시선』 「첫사랑」 「여우의 짓」 「치꾸마강 여정의 노래」 유정편역 창작과 비평, 1997
- 『명문으로 읽는 일본문학 일본문화』 「과계」 노영희 외 박이정, 1998
- 『봄』 노영희 도서출판소화, 2000
- 『과계』 노영희 제이앤씨, 2004
- 『과계』 시마자키 도손 장편소설 노영희 문학동네, 2010

## 2.2. 학술논문

학술논문 총계는 115편이 발표되었다. 『도손시집』 9편, 『선잠(うたたね)』 2편, 『旧主人』 5편, 『수채화가』 2편, 『폭풍우(嵐)』 6편, 『과계』 20편, 『春』 5편, 『家』 8편, 『버찌 열매 익을 무렵(桜の実の熟する時)』 6편, 『新生』 14편, 『海へ』 1편, 『동트기 전(夜明け前)』 10편, 『순례』 3편, 『동방의 문(東方の門)』 4편, 문학일반 47편 등이다.

한국에서 도손의 학술논문은, 『과계』 20편, 『春』 5편, 『家』 8편, 『桜の実の熟する時』 6편, 『신생』 14편 등 자연주의 작품연구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75년부터 매년 자연주의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일본에서

자연주의 문학 중 도손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과계」에서의 중요 테마는, 출신의 비밀에 대한 우시마츠의 고뇌를 중심으로 한 작가의 의도와 고백의 당위성을 파헤치는 논문이 많다. 또한 크리스티오 사상을 중심으로 「과계」의 종교성의 유무에 논점이 맞추어져있고, 우시마츠의 고뇌에 찬 고백과 한국 작품과의 비교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과계」가, 고백소설인가 사회소설인가의 문제에서 고찰한 작품자체의 고백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의 ‘그리스도교를 받아드리는 특수성, 을 지적, 피차별 부락과 크리스찬을 동일시한, ‘蓮太郎의 죽음은, 신념으로 순교한 예수, 베드로 및 바울 등의 죽음과 닮았고, 그의 죽음이 우유부단한 우시마츠에게 고백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야마다(山田ひろし)는 마태복음과의 대조를 재인식하고, 텍사스 행에 대해서는 종교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보고, ‘텍사스는 모세에 인도되어서 모든 고난과 신앙의 갈등을 격고 목표로 했던 토지, 여호와와 신이 약속한 희망의 땅이라는 가나안의 땅을 상징하고 있다. 이 기본 구조는 기독교의 죽음과 부활의 구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2)</sup>라고 한다.

「春」와 「家」에서는, 근대화의 물결이 급물살을 이루면서 밀려오는 명치 일본에서, 근대 사상과의 갈등에서 상처 입는 젊은 군상과 그것을 잘 이겨내어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군상을 다룬 논문이 주종을 이룬다. 「家」는, 자유에의 갈망, 변동기 사회와 전통가족의 몰락, 「家」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파헤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물론 일본의 <家>와 한국의 <家>와의 대조연구도 관심을 두고 있다.

「桜の実の熟する時」는 이 작품의 집필동기와, 종교소설인가 아닌가에 논점이 집중되어있다.

조카 코마코와 근친상관을 다룬 「新生」은, 작가의 모멸을 둘러싼 죄의식과 죄의식으로부터의 구원, 작가의 예고이즘과 위선의 문제, 「新生」의 고백에 있어서 크리스티오교신의 유무, 과연 <신생>하였는가라는 점에 포인트를 둔 논문이 많다.

도손이 완성한 마지막 장편 대하소설 「夜明け前」은, 작품 속에 나타난 근대성 고찰과 국학의 의미, 역사와의 재조명, 모토오리노리나가 죽은 19세기부터를 광의의 근대로 인정하여야 하는가하는 역사의 재편, 한조의 꿈과 환영, 「동트기 전(夜明け前)」의 성립과정과 「동방의 문」으로 연결고리를 발견하는데 논점이 모아지고 있다. 「있는 데로(ありのまま)」와 「솔가지(松が枝)」를 통한 「동트기 전(夜明け前)」검증도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문학자의 눈에 비

2) 『島崎藤村』Ⅱ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有精堂、昭和五八年六月刊 p212

친 명치유신의 서술과 연구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도손은, 「순례」 「도손문고」 「잡기장」을 거쳐 미완의 작품 「동방의 문」을 집필, 서장의 부분에서 미완성인 채 인생을 마감한다. 「순례」의 집필과정에서 보인 내셔널리즘에의 경도, 오카쿠라 텐심(岡倉天心)의 일, 요시에 타카마츠(吉江高松)의 일 등 근대의 사상, 철학, 음악, 미술, 문학자를 총동원, 사상의 분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본 경도의 경향이 눈에 띈다. 도손의 年譜를 읽어보면 「동방의 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연보를 통한 「동방의 문」에의 접근방식이 시도되고, <동방의 문> 읽기를 통해서 도손문학에 나타난 일본적인 세계를 재조명하려는 작업도 활발하고, 동방에서부터 일본에의 이주자를 통해서 동양에의 비전을 재인식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 『藤村詩集』

- 최순욱 『藤村詩集』 도손의 시연구 日本學報 제74호 1권 2008.2, 201-216
- 최순욱 도손의 詩集 『若菜集』에 나타난 自然觀 ; 「가을바람의 노래」 「파도소리」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제20집 2005, pp.195-209
- 김남경 시마자키 토오송(도기등촌)의 시 「첫 사랑(초련)」의 의미 일본근대문학산책. 제6호 2005, pp.29-33
- 최순욱 島崎藤村의 근대시연구 : 위즈위스의 서정성수용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55집 2권 2005.1, pp.199-218
- 김용안 시마자키토오송(島崎藤村)의 『새싹집(若菜集)』考; 작품에 나타난 寓意的 구조를 중심으로 근대일본문학산책 4 한국외대일본근대문학회 1997.3 15-28
- 박영준 聖書가 藤村詩에 끼친 影響; 藤村詩集를 中心으로 日本學報 第36輯 韓國日本學會 1996.5, pp.183-204
- 崔海秀 시마자키토오송(島崎藤村)의 시 정신 탐구 日教展望 3 韓國外大教育大學院 1996.4, pp.127-143
- 김현령 日・韓浪漫主義詩の小考; 島崎藤村の「初恋」と金素月の「つつじの花」を中心に 昭和女子大學大學院日本文學紀要7 昭和女子大學大學院 1996.03
- 김용안 島崎藤村の『若菜集』考; 作家가 試圖한 것을 中心으로 漢陽女子專門大學論文集 19 漢陽女子專門大學 1996.2, pp.55-80

『うたたね』: 명치30년 2월 5일 「신소설」 제2년 제12호에 발표

김정혜 「うたたね」의 近代性 日本語文學 第15輯 日本語文學會 2001.8, pp.9-28

김정혜 「うたたね」의 創作背景 比較文化研究12 釜山外國語大學校比較文化研究所 2001.2 ,pp.69-90

『旧主人』: 명치 35년

임태균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옛 주인(旧主人)」론 日本學報 제81호 2009.11, pp.165-178

시마자키 도손의 「옛 주인(旧主人)」 「짚신(藁草履)」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日本學報 제78호 2009.2, pp.145-160

채영임 島崎藤村の初期作品に見る家族の様相 ; 『旧主人』と『藁草履』の天皇描写と関連して 日本文化研究. 제18집 2006.4, pp.359-373

김용안 島崎藤村의 初期 短篇小説 考察 ; 『옛 주인(旧主人)』에 나타난 작가의 실험성을 중심으로 論文集제21집 漢陽女子專門大學 1998.2, pp.21-52

김정혜 「旧主人」의 自然主義的性格とその意味 부산외대문화연구6 1995.2, pp.289-309

『水彩画家』: 명치 37년 1월 1일 「신소설」

김남경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수채화가(水彩画家)」론 ; 장르 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学研究. 제75집 2권, 2010.11, pp.63-86

김현령 藤村と『水彩画家』 昭和女子大大学院日本文学紀要5 昭和女子大大学院 1994.3

『破戒』: 명치 39년 3월 25일 자비출판 「綠陰叢書」 제1편

姜宇源庸 日露戦後社会における『破戒』と『蒲団』 일본어문학. 제35집 2007.12, pp.395-412

임태균 『과계(破戒)』론 ; 감각표현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제73집 2007.11, pp.211-225

고영란 「部落」表象と総力戦 ; 島崎藤村 『破戒』の受容について 日本學論集. 제20집 2005.12, pp.16-33

최순욱 토오송의 『破戒』 소론 ; 부락민에 관한 차별표현을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제17집 2005. 10, pp.287-308

김용안 시마자키 도손의 자아정체성 찾기 문학 고찰 ; 『과계(破戒)』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제15집 2005. 7, pp.59-80

김용안 시마자키 토오송(島崎 藤村) 『과계(破戒)』考察 ; 작가의 作意와 작품 관계를 중심으로 論文集24 漢陽女子大學 2001.2, pp.77-140

안인형; 한유선 『破戒』의 社会性과 作家 藤村의 部落觀 論文集제30집, 우송정보대학 2001, pp.17-27

김한수 『破戒』에 나타난 ‘家’ 제도 一考 ; 父子關係를 中心으로 日本語文学 第6輯 韓国日本語文学會 1999.3, pp.321- 349

이지형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破戒』의 주제론 ; 주인공의 내부의식의 대립과 자각을 중심으로 소설의 주제 도출법 博而精 1997.11, pp.103-122

오황선 시마자키도손(島崎藤村)의 「破戒」論 明知專門大學論文集20 明知專門大學 1996.11 pp.93-104

김희중 『破戒』研究 ; 출신의 秘密에 대한 丑松의 高뇌를 中心으로 東南保專論文集13 東南保健專門大學 1996.1, pp.41-56

- 安部和美 藤村の『破戒』の主題について；西欧文学の影響と丑松の意味 日本研究 10  
 韓国外大日本文化研究所 1995.12, pp.163-192
- 이지형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破戒』론；사건의 전환점과 근대인의 자각을  
 중심으로 근대일본문학산책3 한국외대일본근대문학회 1995.5, pp.170-179
- 이종덕 島崎藤村私論；破戒』におけるキリスト教思想を中心に 磁界4 現代文学を読む会  
 1994.1, pp.21-36
- 박종채 「破戒」小考 古岩黄聖圭博士華甲記念論文集 古岩黄聖圭博士華甲記念論文  
 集刊行委員会 1993.6, pp.279- 303
- 노근숙 『破戒』における魂の苦悩 日本研究8 中央大日本研究所 1993.2, pp.271-285
- 박종채 島崎藤村의 破戒 研究；主人公의 意識構造를 中心으로 教育論叢10 中央大  
 教育大学院 1993.2, pp.189- 204
- 임성규 島崎藤村とキリスト教—『破戒』において基督教の影響— 国学院大学大学院紀要  
 24 国学院大学大学院 1992.03, pp.251-272
- 한유선 『破戒』論 瑞松李栄九博士華甲記念論叢 瑞松李栄九博士華甲記念論叢刊行  
 委員会 1991.11, pp.569-590
- 이종덕 島崎藤村の『破戒』小考；その宗教的Motivationを中心に 世宗大論文集16 世  
 宗大大学校 1990.4, pp.109- 136
- 『春』**：명치 41년 4월 7일~8월 19일 「東京朝日新聞」에 연재
- 임태균 시마자키 도손의 『봄』(春)론；'연애'라는 광기의 이야기 日本言語文化.  
 제8집 2006.4, pp.203-220
- 임태균 島崎藤村『春』と廉想涉「標本室の青蛙」 日本学報 第49輯 韓国日本学会 2001.  
 12 pp.435-452
- 임태균 『春』における近代自我の精神；夢と運命の二律背反；大学院論集6 日本大学大  
 学院国際関係研究科 1996. 10, pp.103-120
- 오덕경 『春』における『人生の春』 文学研究76 大東文化大学日本文学研究会 1992.12
- 김용안 島崎藤村『春』と李文烈 『젊은날의 肖像』(『若き日の肖像』)との対比考察 日  
 語日文学研究 第18輯 韓国日語日文学会 1991.7, pp.197-214
- 『家』** 상권은 명치 43년 1월 1일~5월 4일 「読売新聞」에 연재, 하권은 「中央公論」  
 에 연재.
- 한유선 島崎藤村의 『家』 研究 논문집. 제12집 우송대학교 2007.1, pp.520-532
- 임태균 시마자키 도손의 『집(家)』 연구；소리의 기능을 중심으로 日本学報. 제65  
 집 2권 2005.11, pp.517-530
- 이현옥 시마자키 도손의 『집(家)』 고찰；기본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본 속박과  
 자유 日本学報 第43輯 韓国日本学会 1999.12, pp.399-410

- 박동석 日本 近代文学에 나타난 「家」; 藤村의 『家』 日本語文学 第6輯 日本語文学会 1998.12, pp.355-374
- 이현옥 시마자키 도오손(島崎藤村)의 『家』에 나타난 자유에의 갈망 高大日語教育研究 1 高麗大日語教育研究会 1997.9, pp.154-187
- 김정혜 변동기사회와 전통가족의 몰락; 「집」과 「삼대」를 중심으로 島崎藤村研究 25 島崎藤村学会 1997.09 pp.51-60
- 김정혜 「家」의空間 日本語文学 第2輯 啓明大日本語文学会 1996.12, pp.125-146
- 박동석 自然主義文学と「家」; 島崎藤村の 『家』 の研究ノート 社会学雑誌 14 神戸大学社会学研究会 1996.1, pp.135-144

『桜の実の熟する時』:대정 2년 1월 「文章世界」

- 임태균 『버찌가 익을 무렵』 (桜の実の熟する時)론 ; '동정'의 고뇌를 중심으로 日本学報. 제67집 2006. 5, pp.241-252
- 황수연 시마자키 토오송의 『버찌가 익을 무렵』 론 ; '스테키치'의 우울 일본근대문학산책. 제6호 2005, pp.159-172
- 임태균 시마자키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 론 일본문학 속의 기독교 ; 한국일본기독교문학연구총서 no.2 2004.9, pp.27-51
- 이지형 <버찌 익을 무렵>에 있어서의<모성>의 양태-다이쇼 시대로부터 돌이켜본 메이지 20년대의 일 단면-<모성> 島崎藤村研究 30 島崎藤村研究 2002.09, pp.69-78
- 노영희 <桜の実の熟する時>における神と父 日語日文学研究 第12輯 韓国日語日文学会 1988.2, pp.27-51
- 임성규 『桜の実の熟する時』 小論 ; 信仰の変遷をめぐって 진리논단 제2호 천안대학교 1998.2, pp.223-242

『新生』

- 김승철 시마자키 토오손과 "新生"에의 회귀; 기독교사상. 통권604호 2009.4, pp.206-219
- 임태균 『신생(新生)』에 나타난 감각표현 연구 日本学報. 제69집 2006.11, pp.383-395
- 김용안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사랑관 고찰 ; 『신생(新生)』을 중심으로 日本言語文化. 제7집 2005.10, pp.193-214
- 임태균 시마자키 도손의 『신생』 론 일본문학 속의 기독교 ; 한국일본기독교문학연구총서 no.1 2003.9, pp.85-112
- 이현옥 『신생』 론 ; <집>의 모형을 둘러싼 죄의식과 구원 日語日文学研究 第45輯 韓国日語日文学会 2003.05, pp.109-130
- 임태균 『신생』 (新生)에 있어서의 문제<부성> 日本文化研究 第6輯 韓国日本学協会 2002.05, pp.143-162



- 이지형 もうひとつの告白；島崎藤村『新生』における＜母性＞＜人間改造＞論 文学研究論集 19 筑波大学比較理論文学会 2001.03, pp.72-51
- 임태균 島崎藤村『新生』論 解釈 46-7,8 解釈学会 2000.08, pp.54-60
- 김용안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신생(新生)』 고찰；주인공의 인식과 행동 양상의 변이를 중심으로 일본근대문학산책 5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일본근대문학회 1998.12 ,pp.15-33
- 이지형 島崎藤村の『新生』論；＜愛＞という名のエゴイズム 繻 10 早稲田大学文学研究科「繻」の会 1998.03
- 조선진 島崎藤村の『新生』論；岸本の偽善について 国学院大学大学院紀要 29 国学院大学大学院 1997.03, pp.191-210
- 김용안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신생』(新生) 考察 漢陽女子專門大論文集20 漢陽女子專門大学 1997.2, pp.135-165
- 임성규 『新生』論；告白と再生(回生と新生) 国学院大学大学院紀要 26 国学院大学大学院 1995.03, pp.189-210
- 김희중 島崎藤村의 「新生」 研究 東南保健專門大論文集 10 東南保健專門大学 1993.2 ,pp.525-538

『嵐』：대정 15년 9월 1일 「개조」

- 임태균 『嵐』 試論；父性の行方を中心に 日語日文学研究 第41輯 韓国日語日文学会 2002.5 ,pp.155-171
- 김용안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폭풍』론；주인공의 회상과 화해 일본근대문학-연구와비평 제1호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2.5, pp.257-282
- 김희중 島崎藤村의 후기단편작품에 관한 일 고찰；「伸び支度」・「嵐」・「分配」 인문사회연구 제2호 동남보건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1.8, pp.81-94
- 김희중 「嵐」에 나타난 <私>와 아이들과의 관계；<私>의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연구 제1호 동남보건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0.7, pp.49-62
- 김용안 시마자키 토오송(島崎 藤村)의 - 『모진 바람(嵐)』 考察；주인공의 회상 속에 나타난 현실과의 화해 양상을 중심으로 論文集；人文・社会篇. 제23집 漢陽女子大学,2000. 2, pp.123-153
- 김정혜 「嵐」의 私小説的性格 釜山外国語大論叢9(人文・社会科学) 釜山外国語大学 校 1991.2, pp.301-314

『海へ』

- 임태균 시마자키 도손의 『바다로』 고찰 日本学報 제76호 2008.8, pp. 241-256

『夜明け前』

- 권영기 『夜明け前』 시마자키도손 一考察 人文学研究. 제9집 2005. 2, pp.107-126

- 이현옥 『(夜明け前)』에 나타난 근대성 고찰 日本學報 第54輯 韓國日本學會 2003.3, pp. 395-410
- 임성규 『夜明け前』와 国学 日本文化學報 第15輯 韓國日本文化學會 2002.11
- 임성규 島崎藤村의 国学精神 芸術至上主義文芸26 芸術至上主義文芸學會 2000.11.
- 고영자 歴史小説の間テキスト性; 島崎藤村の『夜明け前』との関連において 待兼山論叢 32 大阪大學文學部 1998.12, pp.1-22
- 임성규 『夜明け前』論; 그 성립과 사상을 둘러싸고 日本文化學報 第5輯 韓國日本文化學會 1998.8, pp.287-323
- 임태균 『夜明け前』考—夢と狂氣の空間—大学院論集7 日本大學大学院國際關係研究科 1997.1, pp.113-128
- 김정혜 金貞惠 『夜明け前』と近代 釜山外大論叢 15 釜山外國語大學校 1996.8, pp. 141-159
- 김두호 시마자키토오송(島崎藤村)의 동트기전(夜明け前) 연구 瑞松李榮九博士華甲記念論叢 瑞松李榮九博士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1991.1, pp.273-304

### 『巡礼』

- 김정혜 『巡礼』試論 外大論叢 제26집 釜山外國語大學校 2003.2, pp.181-193
- 김정혜 『巡礼』のナショナリズム的解釈の可能性 島崎藤村研究31 島崎藤村學會 2003.09, pp.2-12

### 『東方の門』

- 임성규 島崎藤村의 『年譜』論 日本語文學 第3輯 日本語文學會 1997.08, pp. 133-151
- 노영희 도송문학에 나타난 '일본적인 세계'; 을 중심으로 <東方의 門> MODERN PRAXIS 13 다섯수레 1994.7, pp.116-126
- 노영희 巡礼の旅から『東方の門』へ 東京大比較文學會 1994.3, pp.447-462
- 노영희 晩年の藤村文學に見える東洋へのヴィジョン 比較文化研究所 紀要 53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 1992.01, pp.85-98

### 문학일반

- 이지형 근대일본문학과 서양음악의 조우 ; 파리의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과 드뷔시 日本研究제30집 中央大學校日本研究所, 2011.2, pp.315-336
- 임태균 시마자키 도손의 『에트랑제(エトランゼエ)』론 ; 자기발견의 여행 日本學報. 제85집, 2010.11, pp.95-107
- 김남경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인생철학 ; 『복숭아 물방울(桃の雫)』의 아포리즘을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제28집 2009.9, pp.271-292
- 용석인 김동인(金東仁)과 시마자키 도송(島崎藤村)의 자연주의 소설연구 人文學研究. 제13집,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2, pp.155-188

- 遠藤純 山本有三編『日本少国民文庫』と島崎藤村編『新日本少年少女文庫』に関する一考察 東화와 번역 건국대학교동화와번역연구소, 제16집 2008. 12, pp.391-413
- 박승주 島崎藤村における都市と群衆の発見 日本語文学. 제38집 2007.8, pp.267-290
- 채영임 島崎藤村の初期小説に見る「家族」の様相 ; 『爺』 『老嬢』 『水彩画家』を中心に 日本学研究. 제22집 2007.9, pp.269-285
- 박승주 島崎藤村における女性観 ; 「男女交際」思想を中心に 日本語文学. 제39집 2007. 11, pp.317-346
- 이지형 문학가의 경제의식 ;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과 1920년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日本言語文化. 제11집 2007.10, pp.287-303
- 김남경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7일간의 한담(七曜のすきび)」 고찰 : 수필 쓰기 모색을 위한 산문지 日本研究. 제34호 2007. 12, pp.149-166
- 임태균 『녹엽집(緑葉集)』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시선 日本学報. 제72집 2007.8, pp.209-224
- 김남경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첫사랑(初恋)」 고찰 ; '성(性)'의 눈뜸과 고뇌를 중심으로 일본근대문학 ; 연구와비평. 제5호 2006. 12, pp.167-176
- 채영남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과 염상섭의 시대인식과 '가족' ; 입센의 『인형의 집』의 수용양상을 통하여 일본근대문학 ; 연구와비평. 제4호 2005, pp.333-348
- 이지형 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제13집 2005. 1, pp.91-114
- 임성규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文学 研究 ; 韓國人の 研究 現況 및 成果와 課題에 대하여 日本学報 第62輯 2005.2, pp.463-479
- 김희중 김동인과 시마자키 도손 成均語文研究. 제39집 2004. 12, pp.35-62
- 김남경 시마자키 도손의 「구름(雲)」론 日本学報. 제61집 2004.11, pp.395-410
- 이지형 시마자키도손 (島崎藤村)과 다이쇼(大正)시대의 여성운동 ; 여성문예잡지 『처녀지』(処女地)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学報 第23輯 2004.11, pp.127-146
- 下山嬢子 日本文学とキリスト教 ; 島崎藤村と遠藤周作を視座として 日本文化研究. 제10집 2004.4, pp.7-22
- 최연 일본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의 『春』,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三四郎』,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斜陽』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제24집 2004.2, pp.285-314
- 임태균 일본근대문학 속에 나타난 '광기'의 언설 ; 시마자키 도손의 「어떤 여자의 생애」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제25집 2004. 5, pp.337-356
- 용석인 시마자키 도손의 자연주의 소설 한민족문화연구. 제13집 2003. 12, pp.157-180
- 김남경 도손(藤村)문학에 나타난 노동 ; 『지쿠마가와(千曲川)의 스케치』와 감상집을 중심으로 日本学報. 제54집 2003. 3, pp.273-284

- 이지형 출판계의 지각변동에 직면한 문학자들의 군상; (円本) 붐과 시미자키 도손의 분배 日本文化研究 第8輯 동아시아일본학회 2003.04, pp.281-297
- 이지형 円本ブーム金融恐慌・文学者; 島崎藤村『分配』から見えてくる昭和二年の風景 文学研究論集21 筑波大学比較理論文学会 2003.03 pp.176-154
- 이현옥 붐을 기다리며에 나타난 19세기 고찰 同日語文研究 제18집 동일어문학회 2003.02, pp.115-128
- 이지형 女性文芸雑誌と島崎藤村; 大正時代の女性雑誌及び女性運動における位置づけ <処女地> 日本語と日本文学36 筑波大学国語国文学会 2003.02, pp.1-18
- 임태균 藤村のフランス体験 ; シャヴァンヌの絵画との出会いを中心に 論文集 제31권 聖潔대학교 2002.12, pp.399-409
- 이지형 島崎藤村『子に送る手紙』における〈内〉と〈外〉; ジャンル区分の曖昧性に見え隠れするもの 日本語と日本文学35 筑波大学国語国文学会 2002.08, pp.50-66
- 이지형 関東大震災と〈震災小説〉; 大震災後の報道環境と島崎藤村『子に送る手紙』を中心に 文学研究論集20 筑波大学比較理論文学会 2002.03, pp.166-149
- 이현옥 『프랑스 소식』 고찰 : 도시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제50집 2002.3, pp.341-354
- 임태균 島崎藤村文学における生命主義 論文集 제30권 聖潔대학교 2001.12, pp.353-367
- 이지형 島崎藤村の童話における〈母性性〉; 〈母性保護論争〉との交渉という発想法から 明治から大正へ 筑波大学近代文学研究会 2001.11, pp.316-332
- 조동일 동아시아 소설이 보여준 가부장(家父長)의 종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2호 2001, pp.81-102
- 김정혜 韓国における島崎藤村研究 島崎藤村研究 29 島崎藤村学会 2001.09, pp.32-39
- 김정혜 韓日伝統家族の小説的形象と意味の比較 清泉女子大学人文科学研究所紀要 22 清泉女子大学人文科学研究所 2001.03, pp.205-229
- 김정혜 日本の近代と藤村 比較文化研究 10 釜山外大比較文化研究所 1999.2, pp.81-95
- 김정혜 「老嬢」試論 外大論叢 18-I 釜山外国語대학교 1998.2, pp.649-659
- 김희중 島崎藤村의 생애와 작품 김봉택교수정년기념 日本學論叢 博而精 1999.3, pp.485-508
- 松崎浩 島崎藤村の作品にみられる 「奉公人」 に関する考察; 1911(明治44)年から1913(大正2)を中心に 日本語文学 第5輯 日本語文学会 1998.8, pp.229-255
- 김희중 島崎藤村의 생애와 작품 東南保專論文集 15-1 東南保健專門大学 1997.12, pp.271-286
- 임태균 藤村文学における父子関係の一断面; 「捨子」 意識をめぐって 待兼山論叢31(文学篇) 大阪大文学部 1997.12, pp.47-59
- 임성규 파리時代の藤村 ; 宗教的な変遷をめぐって 日本文学論究54 国学院大学国語国文学会 1995.3, pp.59-74

- 김희중 작품에 나타난 島崎藤村의 고향관 東南保專論文集 12 東南保健專門大學 1995.1, pp.681-693
- 노영희 韓·日 家族史小説의 아버지像; 島崎藤村과 廉想燮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學11 東國大學校 日本學研究所 1992.8, pp.131-150
- 임성규 藤村と同時代者·琴童 國學院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論集18 國學院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1991.03, pp.37-42
- 김정혜 金貞惠 島崎藤村の生涯とその作品世界 文化연구 3 釜山外國語大學校 1991.2, pp.131-151
- 노영희 藤村의 作品에 나타난<日本的인 것>에 關한考察 同大論叢20 同德女子大學校 1990.3 pp.,135-161

### 2.3.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이 46편, 박사학위 논문이 12편이다. 석사 논문 중 「과계」가 23편, 「春」가 2편, 「家」가 7편, 「신생」이 4편, 그 밖의 작품이 10편이다. 석사학위 논문의 비율을 보면, 「과계」를 비롯한 자연주의 문학의 작품 분석이 78%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손연구에 있어서 자연주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의 학부에서 문학교육의 비중이 점점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학원에서 자연주의 문학의 연구 중, 도손 작품분석을 통한 첫 입문이 도손의 「과계」인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말할 수 있다.

「과계」의 분석은, 부락민이란 사실을 인지했을 때의 주인공의 갈등,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갈등극복과정, 사회 소설적 고찰, 「과계」 발표당시 명치시대 신교육계와의 마찰, 「과계」의 크리스토포적 요소 등이다. 「春」은 자연주의 문학과 관련된 사항, 「家」에서는 <집>으로부터의 속박과 붕괴의 과정을 논한 논문이 눈에 띈다.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이지형 「島崎藤村과 대정기의 문화조류」는, 도손의 대정기의 작품군과 문화적 콘텍스트와의 관련 제상을 명백히 하려고 시도한 논문이다. 이현옥 「시마자키 도손의 근대성」은, 일본의 근대화와 행보를 같이 한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작가 시마자키 도손의 문학에 나타난 근대성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추이 과정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태균 「한일근대문학에 있어서 부자관계의 비교연구 -시마자키 도손과 염상섭을 중심으로」에서는, <부자관계> 라는 주제연구에 시점을 고정시켜, 양 작가의 작품에 엿보이는 <집>의 내실을 파악하고, 그 속에 나타나는 가부장제도와 근대적 자아의 보편성과 독창성에 대하여 고찰했다. 임성규 「島崎藤村研究」는, 초기 『도손시집』에서부터 말기의 『동방의 문』에서 도손의 사상의 확립과정과 성장,

분열을 거쳐 재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한 도손 작품론의 총 점검이다. 노영희 「島崎藤村에 있어서 아버지」는, 가족사속에서 아버지와의 갈등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상화에 노력한 과정과, 또한 아버지의 이상화가 일본의 전통에 대한 자각과 일본문화의 재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논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외에 김정혜의 「島崎藤村文学における近代性」과 고영자의 「現代文芸学からみたヘイデン・ホワイトの物語理論への展望」 등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 「破戒」

- 문지영 島崎藤村의 『과계』 고찰 ; 텍사스행과 일본촌의 의미 동국대 교육대학원, 2008  
 차지숙 島崎藤村의 『과계』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2007  
 서지연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 『破戒』에 나타난 주인공의 자아인식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7  
 정명주 島崎藤村의 『과계』 고찰 ; 우시마쓰의 심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5  
 천선미 島崎藤村 연구 ; 『과계』를 중심으로 관동대 교육대학원, 2004  
 김순덕 島崎藤村의 『과계』 연구; 신분차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제주대교육대학원, 2003.8  
 김경미 島崎藤村의 「과계」고 ; 사회상과 근대성을 중심으로 인천대교육대학원, 2002  
 최윤숙 시마자키 토오송의 『과계』 연구 부락인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2000  
 허금란 島崎藤村의 「과계」에 있어서 이중성 조선대 교육대학원, 2000  
 崔順育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破戒' 研究 ; 部落民像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일문학전공, 1999  
 김남경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과계(破戒)』 고찰; 우시마츠(丑松)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외대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1998.2  
 韓亨淑 島崎藤村の『破戒』研究 ; 心理的葛藤過程を中心に 경상대 교육대학원, 1997  
 權倫慶 島崎藤村の『破戒』研究;その主題を中心に ; 상명여대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997  
 尹惠楨 사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과계(破戒)』考;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갈등 극복과정; 한국외대대학원, 일본어과, 1997  
 李志炯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破戒』론; 주인공의 의식 내부의 대립과 자각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996  
 朴承珉 島崎藤村의「破戒」研究; 社会小説的 側面の 考察; 건국대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1996  
 高榮蘭 '破戒'に関する考察; 登場人物の教育観についての分析; 경희대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994  
 金漢洙 藤村의 '破戒' 研究, 중앙대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1994

朴鍾彩 島崎藤村의 「破戒」 연구; 主人公의 意識構造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1993

金光沃 『破戒』 評価史に関する考察, 성신여대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992

俞明載 島崎藤村의 研究; 「破戒」를 中心으로; 조선대학교대학원, 일어교육전공, 1992

金美智江 金史良의 「光の中に」考; 藤村의 「破戒」と対比してみた疏外の一様相; 한국외대대학원, 일본어과, 1990

金貞順 破戒에 있어서의 部落民 問題와 그 動機, 계명대학교대학원, 일어교육전공, 1990

### 「春」

김계숙 島崎藤村의 『春』에 나타난 여성인물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2000

李賢貞 日本 自然主義 文学과 島崎藤村 研究; 「春」와 「家」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1996

### 「家」

김은영 島崎藤村의 『家』 연구 : 등장인물들의 성격비교를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06

咸宗敏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의 『집』(家) 연구; 「病」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碩>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교육전공, 2003

한수정 島崎藤村 『家』 研究 ; 三吉의 新家建設失敗의 原因分析을 中心에 성신여대대학원, 2000

이현옥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집(家)」 고찰 ; 속박 그리고 자유사이에서; 고려대학교대학원, 日語教育專攻, 1997

李賢貞 日本 自然主義 文学과 島崎藤村 研究 ; 「春」와 「家」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일어교육전공, 1996

洪英愛 島崎藤村의 作品에 現われた 女性像 研究 ; 「家」의 お種と 「ある女の生涯」의 おげん을 中心에; 성신여대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993

### 「新生」

강혁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신생』 고찰 ; 기시모토(岸本)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2004

박승수 島崎藤村의 『신생』 연구 ; 자전성을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2001.8

강진희 「新生」論, 한양대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998

李英淑 『新生』에 나타난 非倫理性과 自我具顯, 계명대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990

## 그 밖의 작품

- 차동엽 島崎藤村과 국제교류 : 『순례』를 중심으로 ; 부산외국어대 대학원, 2009
- 천선미 시마자키 도손 문학연구 ; 프랑스체류이후를 중심으로 동덕여대 대학원, 2009
- 黃脩娟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버찌가 익을 무렵』론 ; ‘스테키치(捨吉)’의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2004
- 이경민 島崎藤村における女性像 ; 「守」る女を中心に = 島崎藤村에 있어서의 여성상 : 「守」る女를 중심으로 경북대대학원, 2002
- 奉容美 島崎藤村의 『폭풍(嵐)』論 ; 노년의 이중성 극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진건 일본의 국학사상 ; 島崎藤村의 『夜月ヶ前』에 나타난 국학사상을 중심으로 천안대국제경영행정대학원, 2000
- 任苔均 島崎藤村文学における父子関係の考察, 일본대대학원, 국제관계연구과, 1997
- 徳永裕亨 島崎藤村論; 자유를 위한 苦闘; 건국대대학원, 일어일문학과, 1996
- 尹美蘭 『夜月ヶ前』論, 神戸大大学院, 문학연구과, 1992
- 朴濟洪 젊은 時節 島崎藤村의 苦惱 ; 初期 作品을 中心으로; 조선대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1992

## 박사학위논문

- 蔡永姪(2005) 『島崎藤村と廉想渉の比較研究』 広島大学
- 천선미(2008)시마자키 도손 문학연구 ;프랑스체류이후를 중심으로 동덕여대
- 최순옥(2006)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근대시 연구 중앙대
- 김남경(2005) 시마자키 토오송(島崎藤村)의 수필 연구 ;그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 김용안(2004)시마자키 토오송 연구 한국외대
- 이지형(2003) 島崎藤村と大正期の文化潮流 筑波大学
- 이현옥(2002) 시마자키 도손의 근대성 ;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근대성: 『집(家)』에서 『동방의 문(東方の門)』으로 동덕여대
- 任苔均(2000) 日韓近代文学における父子関係の比較研究 - 島崎藤村と廉想渉を中心に 大阪大学
- 김정혜(2000) 島崎藤村文学における近代性 한양대
- 고영자(1998) 現代文芸学からみたヘイデン・ホワイトの物語理論への展望 : 島崎藤村の「破戒」・「夜明け前」との関連において 大阪大学
- 임성규(1996) 『島崎藤村研究』 国学院大学
- 盧英姪(1991) 島崎藤村文学における父 ; 異文化体験との関連から 東京大学



### 3. 결론

본 논문을 통하여, 도손의 저서 및 역서의 간행사정,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현황 및 성과, 그 문제점 및 과제를 조명하였다. 2005년 「한국에서 도손(藤村) 문학 연구 성과와 과제 조명」이라는 논문을 통해 필자는, ‘도손 문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문헌인 한국어 번역서가 극히 적다. 또한 국내의 동양학 번역에 있어서 실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되지 않았으며, 번역인구의 저변확대가 안되었다’<sup>3)</sup>라고 지적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번역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에서의 동서양 학술명저 지원 사업을 통한 사업도 번역서의 활성화에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도손관련 한국인 논문을 살펴보면, 한국 연구자가 일본논문이나 일본자료를 ‘참고문헌’과 ‘주’로 인용하고 있다. 한국인이 도손관련 문헌을 인용할 때, 한국인에 의하여 쓰여진 단행본을 비롯하여 논문의 인용은 그 편수가 극히 적었다. 도손의 경우 일본에서 연구 역사도 길고, 다른 작가에 비해 연구 층도 두꺼워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근현대문학 학계에서 작품론 연구물에 대한 객관성 문제로 종종 비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도손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실적의 연구를 통한 실증적 연구의 자세가 요구되고, 일본연구자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도손연구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손의 학술논문의 연구 성과는 일본학보가 발간된 75년을 기점으로 할 때, 그다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에서 노영희, 임태균, 이지형, 고영자, 채영임, 필자 등이 도손관련 논문으로 학위취득, 국내에서도 여러 도손연구자들이 학위를 취득하여,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학술연구도 이들 젊은 연구자와 후학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토론 연구 발표되는 시점이다.

3) 「일본학보」 제62집 p465

## 【参考文献】

- ・瀬沼茂樹『評伝島崎藤村』 実業之日本社 昭和三四年七月刊
- ・笹淵友一 「『文学界』とその時代」 明治書院 昭和三五年一月刊
- ・吉田精一『吉田精一著作集』六 桜楓社 昭和三五年七月刊
- ・『島崎藤村』Ⅱ『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有精堂 昭和三五年六月刊
-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特集透谷と藤村〉」 昭和三九年六月刊
- ・「解釈と鑑賞」別冊 『現代のエスプリ島崎藤村』 昭和三九年五月刊
- ・「解釈と鑑賞」〈自然主義と反自然主義〉」 昭和三九年九月刊
- ・「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島崎藤村と日本の近代〉」 昭和三九年四月刊
- ・「解釈〈特集・島崎藤村研究〉」 昭和三九年七月刊
- ・「信州白樺〈特集藤村〉」 昭和三九年四月刊
- ・「解釈と鑑賞〈島崎藤村の再検討〉」 平成二年四月刊
- ・노영희『아버지란 무엇인가』 시마자키도송의 문학세계 時事日本語社 1992
- ・노영희『시마자키 도송』 고향과 아버지의 문학적 형상화 건국대출판부 1995
- ・임성규『島崎藤村研究』 도서출판 冠岳社 서울 1996
- ・『나쓰메 소세키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까지』 글로세움, 2003
- ・장남호『일본 근현대문학 입문』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 要 旨

藤村の著書及び訳書の刊行事情、学術論文、学位論文を中心にする研究現況及び成果、その問題点及び課題を照明した。2005年、「韓国で藤村の文学の研究成果と課題の照明」という論文を通じて筆者は、‘藤村の文学を研究するのに必要な基礎文献である韓国語の翻訳書がすくない。又、国内の東洋学の翻訳で実力のある人才が養成できなくて、翻訳人口の底邊拡大ができなかった’と指摘した。5年が過ぎた今、状況がよくなっているとはいえない。しかし、学界でも翻訳を認定し、受容する姿勢が真摯に論議されていて、韓国研究財団での東西洋の学術名著の支援事業を通じる事業も翻訳書の活性化に役に立つだろう。

藤村関連の韓国人の論文を調べてみると、韓国の研究者が日本論文や日本資料を‘参考文献’と‘注’に引用している。韓国人が藤村関連の文献を引用する時、単行本をはじめとして論文の引用はその数がすくない。日本の近現代文学の学界で作品論の研究物に対する客観性の問題としてしばしば批判されている現実で、韓国の藤村の研究者は先行研究実績の研究を通じる実証的の 研究の姿勢が要求されている。

キーワード：藤村、修士学位、博士学位、近代精神、翻訳、キリスト教の受容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